

##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도전과 과제

차 홍 봉\*

### I. 서언

오늘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희망의 2000년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이 대회의 대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재 좌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사회적 시책과 노력을 의미하며,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20세기 100년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빈곤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20세기 후반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사회복지도 20세기 늦으막에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는 지난 1세기 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한국사회복지의 발달 배경이 되는 정치경제적 상황여건과 사회문제의 상황,

---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대응상황, 사회복지사업과 프로그램의 발달 상황,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천학문으로서 사회복지학의 위치와 역할 등을 개괄적으로 한 번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II. 20세기의 회고와 평가

서양 선진국에서 사회복지지는 19세기말부터 100여년에 걸쳐 발달되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지는 뒤늦게 시작하여 이제 겨우 기초를 만들어 놓은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100년을 회고하여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는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는 1970년대 후반까지의 80년간이고, 제2단계는 1980년대 이후 약 20년간입니다.

### 1. 1970년대까지 : 캄캄한 밤중의 시대

제1단계인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해방 이후의 남북분단과 전쟁, 혁명 등 정치적 혼란기에 「나라 만들기(nation building)」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경제적으로는 피폐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습니다. 빈곤과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혼란기에는 전재민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컸습니다. 이 시기에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며, 경제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습니다. 농촌사회가 해체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기에는 빈부격차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1단계 시대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는 응급구호정책 뿐이었으며, 사회복지사업도 구호사업이 고작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사회과가 만들어졌지만 행려병자에 대한 구호사업을 담당하는 정도였습니다. 일제말기의 조선구호령과 미군정시기의 규정도 응급구호정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동란 이후에는 전재민을 응급구호하기에도 바쁜 때였습니다. 60년대까지는 외국민간원조단체가 국내에서 극빈자에게 구호물자를 배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0년대에 들어와 사회복지를 위한 입법작업을 시작하여 법률을 많이 만들었으나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구호위주의 사회복지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에 빈곤층을 위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1970년대말까지 국가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부식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주식비로도 밀가루 한 홉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5·16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7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경제성장 - 일자리창출 - 소득증대로 연결되어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대빈곤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성장이 곧 국민복지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복지사업은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학의 교육도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1970년대 말까지 10개 정도의 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그 경험에 따라 사회복지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식 사회사업학을 도입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복지학이 우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합성을 지니고 있으나 하는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졸업생들이 취업할만한 사회복지전문기관이 거의 없었으며 일부 졸업자가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정도였습니다.

20세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 제1단계의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깜깜한 밤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1980년대 이후 : 여명기의 시대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새벽의 여명기'를 맞이한 것은 1970년대말, 1980년대 이후 20여년간입니다.

이 제2단계의 시기는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산업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가 깊숙이 진전되는 때입니다. 도시산업사회로의 재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분리·해체, 빈부격차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산업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국가도 이 시기에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2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축적된 덕분이기도 하였고, 한편 경제개발과정에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복지적 통합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탓도 있었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 사회개발이 강조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지」가 국가목표로 설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의 양대 근간중의 하나인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는 1977년에 시작하여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장을 실현했습니다. 1988년에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하여 1995년 농어민에게 확대하고 11년만인 1999년에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습니다.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도 실시하였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국민을 위한 공공부조사업도 198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쌀·보리쌀 지원(1978년), 부식비 지원(1980년), 연료비 지원(1979년), 교육보호 및 자활보호(1982년), 생업자금융자(1982년)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간의 생활보호사업의 결함을 보완하고 절대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비지원으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들도 이 시기에 일제히 발전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1981년에 제정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이 같은 시기에 개정되었습니다. 1983년에 사회복지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정부에 배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이 1982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아동보육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2단계의 시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과 연구도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가 1979년 13개 대학에서 1998년 144개 대학으로 20년 동안에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입학정원도 1979년 697명에서 1998년 8,005명으로 10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특수대학원도 그동안 39개(입학정원 1,744명)나 새로이 생겼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전문자격자인 사회복지사의 배출도 괄목할만한 것이었습니다. 즉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처음 발급할 당시 2,493명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42,2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5년 동안에 17배 늘어난 셈입니다. 사회복지전문분야의 취업자도 이 시기에 주로 증가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4,800명)과 사회복지관 등 시설 직원이 대부분 자격자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 2. 종합적 평가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20세기 후반부 20여년 정도에 걸쳐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나 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기초를 만들고 외형적인 틀을 갖춘 단계입니다. 아직 내실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20세기의 한국사회복지가 발달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사회복지의 선진국에 비해 아주 뒤늦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선진 제국에서는 사회복지가 19세기에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비해 거의 50년 정도 뒤떨어진 셈입니다. 20세기 뒤늦게 시작하여 선진국을 뒤쫓아가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직 미성숙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아직 잎과 꽃이 무성하게 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의 미성숙 상태는 아래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각기 프로그램들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②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의 급여 내용과 수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③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사회복지재정이 빈약하고 재정 안정성도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것은 국가의 근대화 작업 자체가 늦었던 점, 그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 점, 사회적 시민권 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여 사회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사회복지의 20세기 후반기의 사회변화에 따라 발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산업자본주의 사회로의 사회변화는 급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도 이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하였습니다. 경제발전

에 비하면 일정한 시간거리가 있었지만 산업화 - 사회문제 -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모양을 보여왔습니다.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형성·발달에 관한 구조기능주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복지발달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왔습니다.

20세기 후반기의 사회복지발달은 1980년대 이후 국가의 정책적 작용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1970년대 말 이후의 사회개발계획,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정책이 그 동인입니다. 거기에 따라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사업과 프로그램들이 발전하였습니다.

복지재정의 취약성 등 국가의 복지정책이 미약하다는 비판은 가할 수 있지만 80년대 이후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이 한국사회복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외국인간원조단체가 시작한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사회복지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를 뿌리로 하여 1970년대에는 외원사업이 국내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이와 관련하여 발전하여왔습니다. 공적 사회복지가 발달하지 못한 70년대까지 세상에 보이지 않은 읍지에서 민간사회복지사업이 밑거름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 때를 맞추어 민간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사회복지관은 정부가 설립하였지만 대부분 민간기관이 그 운영을 맡아 민간 사회복지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교육과 연구분야가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한 일입니다.

사회복지학이 20세기 중반기까지 현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응용학문으로서의 자기 자리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수요의 증대현상에 따라 이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실 대응학문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서서히 자기 자리를 마련하여 가고 있습니다.

### Ⅲ. 21세기 복지국가의 전망과 사회복지의 과제

#### 1. 21세기초 복지국가의 열망과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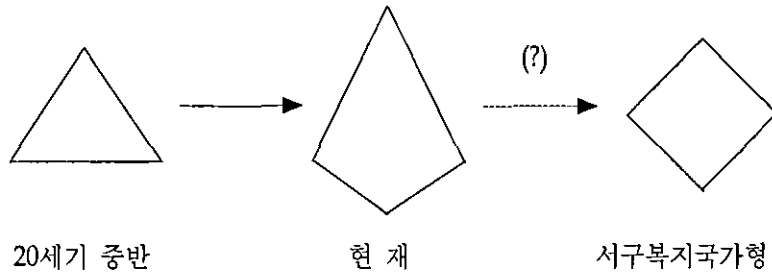
지난 20세기 후반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민족적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을 이룩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만한 것입니다. 국민들도 훨씬 나은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97년 이후 IMF 관리체제로 넘어가면서 경제발전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21세기 초에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함께 사회복지까지 균형 발전하여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초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에는 아직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 사회계층구조는 상하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소득계층구조만 볼 때 20세기 중반까지는 절대빈곤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구조이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 구조가 밑으로 축 처진 다이아몬드의 모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그림 1 참조).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지만 상하간의 계층격차가 더 커지고 아직도 중하위층이 크게 두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아주 두터운 서구 복지국가의 계층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림 1] 소득계층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사회변화과정에서 국민모두가 '나' 중심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남과 더불어 사는 데는 인색하여 국민계층간에 불신의 폭은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이와 같은 계층간의 불평등과 불신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21세기 초의 사회변화를 전망하여 보면 사회문제도 보다 다양화되고 사회복지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가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0%를 넘어서서 노인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

산되고 핵가족화가 진전되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아동보육문제, 청소년문제, 노인 부양문제 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흡수하던 시스템에서 사회가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이행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소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21세기초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세계 선진복지국가의 변화에 따른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선진복지국가는 과도한 복지가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종래의 복지국가정책을 수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쳐 복지국가정책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쪽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비판의 소리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려는 시간에 그 길로 가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꼴입니다.

21세기초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는 그간에 누적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하여 현재 미성숙 상태의 사회복지를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와 한편에서는 서양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복지국가의 병폐를 피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지금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낙후성을 극복하면서 먼저 경험한 시행착오의 진찰을 밟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 2. 2000년대 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사회복지는 지난 20세기말의 여명기를 지나 이제 밝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기로의 아침입니다. 21세기초 우리가 바라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첫째, 사회복지의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고 국민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존엄성 사상에 기초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만이 아니라 남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입니다. 이 목적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이념적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20세기 후반기의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심화된 계층간의 불평등과 불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푸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은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으로 사회복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인당 GDP의 향상이 곧 사회복지의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복지가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정책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 경쟁, 효율의 가치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나눔의 가치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병행적으로 그리고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이제 성숙화 시켜 나가야 합니다. 20세기 후반기에 발전된 제도적 틀 위에 이제 그 내용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회보험 부문에서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보험급여수준을 적정화하는 것,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2000년에 시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착실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공적 및 민간서비스전달체제를 확립하는 것, 지역사회중심의 재가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보건의료와 복지욕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넷째,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책대가 필요합니다.

20세기 후반기 사회복지가 늦게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제 21세기 초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재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재정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사회보험재정도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자발적 자원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사회복지학도 이제 우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함

니다.

20세기의 사회변화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요는 사회복지정책학과 사회복지실천기술학이 모두 필요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발전도 필요하고 사업과 프로그램의 발전도 필요하며, 개개인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분명해지면서 실천기술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복지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 문제해결의 방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선행정기관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어떤 점에서 전문가인지, 일반공무원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잘하는지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2003년에 시작되는 사회복지사의 국가고시제도를 계기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들 사회복지전문가가 선진복지국가의 일선 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IV. 결어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시대」를 넘기고 새로운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침의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잘하면 우리 세대에 선진복지국가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21세기 초에 예견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한국사회복지를 성숙화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국민이 사회복지의 가치에 대하여 더 잘 인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 - 현장의 전문가, 공무원, 학자들이 한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앞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21세기 초 선진복지국가의 아침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내리는 「한국사회복지」라는 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해야 합니다.